

원희룡 장관, "지역의견 수렴하면서 경전선 최적방안 찾겠다"

- 16일 순천시를 방문하여 현장의견 수렴,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기원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6일 오전 9시 40분 순천시를 찾아 경전선 광주송정~순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지역의견을 청취하고,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였다.

* (사업개요) 광주~보성~순천 122.2km 단선전철(250km/h급), 1조 7,703억원

□ 먼저,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난 원 장관은 경전선 현장을 점검하기에 앞서 순천시 관계자들과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이 조망되는 강변을 걸으면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,

○ 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며,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 수도,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”고 밝혔다.

□ 다음으로, 원 장관은 순천시로부터 ‘도심지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경우 고속열차의 도심 통과로 지역단절, 소음·진동 문제 등의 민원이 우려된다’는 의견을 듣고,

○ 경전선 도심 통과구간인 남정 건널목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으며,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.

□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오늘 이 현장을 방문했다”면서,

○ “순천시는 전라선과 경전선 철도가 만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, 호남지역과 남해안 발전에 성장판 역할을 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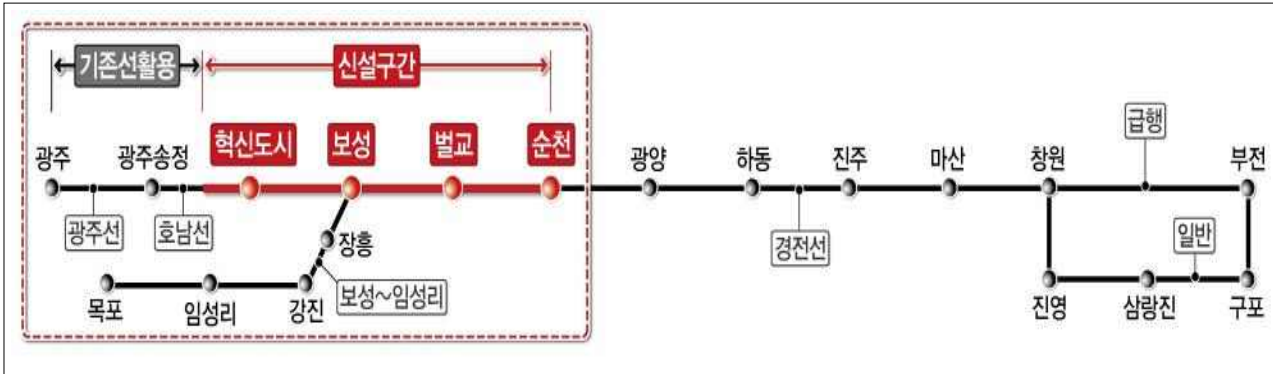
○ 아울러, “경전선 철도건설이 완료되면 순천뿐만 아니라 영·호남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며 남해안 전성시대를 열게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경전선 도심 통과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“기본계획부터 다시 하려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고, 주변지역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”면서,
- “예산이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,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도심 우회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2023. 2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사업개요



- 사업목적 : 경전선 미개량 구간(광주~순천) 고속화를 통한 일괄수송 체계 구축 및 영·호남간 인적·물적 교류를 통한 남해안권 활성화
- 사업규모 : 광주~보성~순천 122.2km 단선전철
- 총사업비 / 사업기간 : 1조 7,703억원 / '20년~'28년(8년)
- 열차운행계획 : KTX-이음 20회(광주~순천 3, 광주~부전 6, 목포~부전 11), 화물 2회

□ 주요 추진경위

- '16. 6 :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
- '19. 1 :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예타 대상사업 선정
- '19. 5 ~ 12 : 예비타당성조사 통과(B/C 0.88, AHP 0.653)
- '20. 5 ~ :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
- '22. 2 ~ : 설계적정성 검토(KDI)

□ 향후 계획

-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설계 등 후속절차 조속 추진